



발행인 | 이용우 편집인 | 김영훈 박지훈 신혜란 발행처 | 대한지리학회
Tel | 02-875-1463 Fax | 02-876-2853 e-mail | geography77@hanmail.net
주소 | 우) 04376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213-12, 한강현대하이델 1413호

제 **144**호
2020년 12월 31일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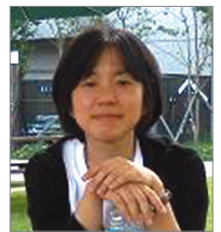
부회장 칼럼	1
퇴임교수 칼럼	2
국내교수 칼럼	4
2020 대한지리학회(온라인) 연례학술대회	5
대한지리학회 소식	7
전문학회 및 교사모임 소식	8
학과소식	10
새로 나온 지리학책	10

부회장 칼럼

2020년 대한지리학회 활동에 대한 소회

- 이영아(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2020년은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유래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던 한 해였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공급되어 코로나의 기세가 꺾이기를 바라고, 하루라도 빨리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희망일 뿐,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은 우리 사회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경제구조 재편과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고 지구적 차원에서부터 국지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공간 재편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환의 시대에 대한 지리학적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지리학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지리학적 성찰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2020년도 코로나-19의 확산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에 대해 정리하고 반성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2020년 대한지리학회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년과 같은 활동을 다 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 더해, 생각지도 못한 회장 부재의 상황을 맞아 부회장단이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서 정상적으로 학회를 운영하기 어려웠다. 안건마다 5명으로 이루어진 부회장단과 총무이사가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했다. 따라서 주도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지리학적 논의를 이끌어가지 못했다. 사업적으로도 코로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체계로 빠르게 전환하지 못하고 기존 사업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우선 6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춘계학술대회가 취소되었다. 10월에 한국에서 개최하고자 했던 제 15회 한중일 지리학대회도 취소되었다. 학회 주요 사업으로 매년 지원이 이루어져 왔던 지리올림피

아드 대회도 2020년 도쿄 올림픽처럼 개최되지 못했다. 미래 세대에 게 지리학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행사이니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일선 학교의 상황은 훨씬 어렵고 복잡했다.

물론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은 다수의 회원이 참여하여 성과를 냄으로써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줌 시스템을 점검한 뒤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학술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130여 명이 등록하였으며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사전 녹화 발표와 실시간 발표 등을 병행하면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학술대회였다. 학술상과 남계

논문상 등의 심사도 줌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차기 회장 선출도 이루어졌다. 사전 안내를 하고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통해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전자투표가 가능한 선거인 명부의 67.87%가 참여하였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차기 회장 선출을 할 수 있었다.

회장의 부재, 주요 사업과 학술대회의 취소 등 모두가 처음이었던 이 상황을 맞아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2021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롭게 꾸려진 회장단과 임원진을 중심으로, 그리고 올해의 경험으로 무장된 회원들이 함께 내년에는 더 주도적이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해 가면서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퇴임교수 칼럼

지리학, 감사하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 김부성(고려대 지리교육과 명예교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마이클 샌델 교수는 최근의 책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능력주의를 앞세운 엘리트의 태도가 대중의 분노를 샀고 포퓰리즘의 반란으로 이어져서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공한 자들이 능력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운이 따랐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겸손해질 수 있고 불운한 이들에 대한 존중과 연대 의식을 배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운이 좋은 사람은 안전하게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반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편안하게 지내는 건 아니라고 죄책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제가 퇴임 소회를 밝히는 자리에서 거창하게 이 얘기를 끌어들이는 이유는 저야말로 저의 능력과 노력보다는 운이 좋아서 우연히 지리학에 입문하였고 덕분에 나름 명문대학의 교수로 과분하게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유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주입식교육과 내신에 잘 적응한 덕분에 소위 명문 고등학교와 서울대 지리학과에 입학하였고 독일문화원에서 만난 남편이 독일 유학 가는 바람에 얼떨결에 독일 유학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독일국가 장학금도 그 당시 독일어·국사·국민윤리 시험으로 선발하였는데 역

시 실력보다는 시험 내용(?)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전공도 남편 따라 입학한 뮌헨 대학이 사회지리학이 유명하여 선택하게 되었고 그럭저럭 박사학위를 받아서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 저와 일면식도 없었던 고려대 권혁재, 고 최영준, 남영우 교수님께서 고맙게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교수로 임용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반평생을 무사히 봉직하고 퇴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세 분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건 저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세 분 다 각자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계실 뿐 아니라 학문과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나 열정에서도 그야말로 학자의 귀감이셨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동시에 선생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도 못하고 조언을 할 자격도 없지만 한두 마디 후학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을 남겨달라고 요청을 받았으니 그냥 그동안 느낀 점 몇 가지를 적으려 합니다.

첫째,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지리학이 좋아서 소신



있게 지리학을 선택하신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제2지망으로 지리학과에 들어왔고(그렇다고 제1지망인 사회학을 특별히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학원은 다른 거 할 게 없어서 진학하고 유학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남편 따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 보니 인생은 계획보다는 우연이 더 많이 지배하는 듯도 합니다. 또한, 지리학을 하면 할수록 지리학이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주지하듯이 지리학이 자연과학에서부터 인문사회과학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 아우르는 학문인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의 교수 수가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분야를 강의해야 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이것은 지리학의 장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즉 누구나 지리학 내에서 본인의 관심사를 찾을 수 있고 아직도 미개척분야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 제가 유학한 뮌헨대학 지리학과가 사회지리학과 관광 지리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다 보니 저도 관광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평소에 먹는 것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음식관광에 대해 나름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실제로 한국과 유럽에서 답사와 체험도 남부럽지 않게 하였습니다. 음식이야말로 한 지역의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의 종합적 산물로 중요한 문화적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구술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음식관광 지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제 퇴임 후 목표이지만 워낙 게을러서 실현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피하지 못하면 즐기라고 여러분들도 자신이 끌리는 분야를 선택해서 그제 지리적이건 아니건 간에 재미있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만 중요하다고 주장하지 말고 다른 분야 연구도 서로 격려해주고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지리학 전체로 윈윈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 첫 번째가 계통지리학에서의 주제선택이라고 하면 두 번째로는 당연히 관심지역선택이 필요하겠지요. 한 사람이 모든 지역을 다 연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심 지역을 좁히는 것이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리학의 출발이 지역연구이고 과거나 현재나 지역연구엔 그 어느 학문보다 강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소견으로는 우리나라 지리학계엔 아직 해외지역전문가는 물론이고 국내지역전문가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은 물론이고 우리와 가까운 중국, 일본 전문가조차 많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도 일부 서유럽국가를 제외하곤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전문가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저부터도 독일에서 유학하고 독일을 여

러 번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전문가라 내세우기 어렵고 하다못해 서울에서 65년을 살았어도 서울 전문가라 자처하기 어렵습니다. 지리학자로서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지리학자의 수가 적은 것도 원인일겠지요. 제가 강의시간 학생들에게 매번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지역연구에서 아직도 많은 ‘미지의 땅’ 즉 틈새시장이 존재하니 과감하게 ‘미지의 땅’으로 뛰어들어 보는 것도 지리학자로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일반인들도 한 달 살기, 일 년 살아보기 등을 실천하는 등 해외건 국내건 지역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셋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록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퇴임을 하면서 나름 제일 아깝게 생각하는 것은 고려대에 재직하면서 30여 년 동안 정기답사, 대학원 답사, 일일 답사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수집한 자료들을 안타깝게도 다 폐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름 희귀한 자료들도 많았는데요. 이 내용을 그때그때 잘 기록·정리해 두었다면 의미 있는 결과물이 되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리학의 꽃은 답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아무리 발달해도 검색으로 얻는 지식과 직접 체험으로 얻는 정보와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의 발전은 기록의 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귀중한 자료들을 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73학번이니 지리학에 입문한지도 47년이 지났습니다. 보통 30년이면 뭘 하든지 장인이 된다고 하는데 장인은커녕 지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를 못 한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의 지리학 여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서울대학교 은사님들, 선후배 동료 지리학자들, 고려대학교 교수님들과 제자들에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리학이라는 멋진 학문을 할 수 있어 행복했고 앞으로도 지리학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질적연구방법

- 신혜란(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코로나 상황이 가져온 연구계획 변경

표본 대표성에 기반해 일반화에 강점을 가진 양적 연구와 달리, 질적 연구는 그 일반화를 다소 희생시키는 대신 메커니즘과 사건의 연결성, 깊이 있는 이해를 해오는 연구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질적 연구방법으로 현장방문을 기본으로 해서 연구 사례의 주요 행위자들과 만나서 이야기 듣는 심층 인터뷰, 주요 행사나 일상활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관찰하는 참여관찰이 있습니다.

이동과 대면 만남을 피하게 된 코로나 상황은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는 연구자들에게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연구팀이 2020년에 코스타리카, 멕시코 현장조사를 계획했다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두 중남미로 가는 긴 여행길이 걱정되던 차였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제 조교이자 공동연구자인 박사과정생은 대신 온라인 화상 인터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학생은 코로나 전에 중남미의 연구대상자들과 스카이프(Skype)를 통해 심층 인터뷰 여러 건을 성공적으로 한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Zoom을 이용한 심층 인터뷰 경험

저를 포함한 연구진은 생각지 못한 성공적 경험담을 듣고 zoom을 이용한 온라인 심층 인터뷰를 하기로 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눈 굴리기 방식으로 피면담자를 구하는 대신에, google forms에 스페인으로 이 연구의 취지와 연구대상 조건을 설명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심층 인터뷰 대상자를 구하는 것은 거절을 당할 때가 많아 힘든 과정인데, 하루 만에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터뷰에 지원했습니다. 아마 연구주제가 부담스럽지 않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심심한 데다가 이런 형태의 소통이 소셜네트워크 이용자들에게 친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이 조교의 코스타리카 출신 친구가 한국에 있어서 코스타리카 피면담자를 구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연구팀이 계획한 피면담자는 노년층과 청년층이며 개인적인 경제사정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원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고 젊은 고학력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물림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과 한계가 있으니 그것은 연구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그

리고 같은 수의 노년층과 청년층 피면담자를 구해야 해서 노년층을 구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청년 지원자에게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화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저는 영어로 인터뷰를 해야 했는데, 멕시코시티와 산호세에 사는 사람들은 영어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 대면하는 심층 인터뷰에서 장소는 피면담자에게 물어 편안한 장소로 잡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낯선 장소에 가게 되고 그때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인터뷰 질문을 준비하고, 자연스러운 순서도 생각해 보고, 대화가 옆으로 새어 피면담자가 다른 얘기를 계속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녹음이 잘 되어서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녹음기를 준비했고, 여분의 건전지, 여분의 녹음기도 이용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하는 서약이 담긴 문서도 준비합니다. 연구자 옷도 단정한지 점검하고 인터뷰 장소에 늦지 않게 도착합니다. 인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하면, 사생활 보호에 관해 설명하고 녹음을 해도 괜찮겠냐고 물어보고 허락을 받으면 녹음을 시작합니다. 준비한 질문을 노골적으로 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꺼내고 구체적인 얘기로 심층적으로 들어가고 앞서 한 얘기와 비교도 하면서 이끌어갑니다.

위의 과정은 훈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지 않는 도시나 나라로 현장조사를 하러 가면 보통 1~2주에 한정된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해야 해서 체력소모와 심적 부담이 많습니다. 특히 시차가 있는 곳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비대면 심층 인터뷰는 그런 부담을 많이 덜었습니다. 중남미에서 퇴근 후인 저녁 시간에 맞추어 한국 시각 8시에 하면 양쪽에 다 좋았습니다. 연구자의 연구실이나 집에서 하니까 자신이 익숙하게 하던 곳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늘 쓰는 컴퓨터 화면에 예상 질문이나 참고할 만한 자료를 놓아서 보면서 할 수 있었고, 필요하면 zoom의 화면공유 기능을 써서 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zoom에서 녹음과 녹화도 잘 되니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녹취 전문가에게 보내기도 쉬웠습니다. 조교



가 스페인어로 한 인터뷰도 요즘 무료 자동번역수준이 상당히 영어번 역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시작할 때 정작 문제가 되 는 심리적인 저항이 있었지만, 이 심층 인터뷰를 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그저 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물론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는 그 거리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산호세 한 야외카페에 앉아있는 피면담자와 얘기를 하는데, 뒤로 보이는 나무, 건물들을 보니 한 번도 코스타리카 에 가지 않았던 저에게 그 사회의 느낌이 확 와 닿았습니다. 그만큼 단 며칠이라도 현장에 있는 것은 연구자의 이해를 다르게 합니다. 이런 경 험의 장단점을 고민해서 2020년 2학기 제 강의였던 <질적 연구방법> 대학원수업에서 논의했습니다.

질적 연구방법, 끊임없는 탐색과 실천

장점이 많은 온라인 강의가 코로나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될 것처럼, 온라인 인터뷰, 화상 참여관찰도 직접 현장에 가는 조사와 결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 가기 전과 후 에 온라인 인터뷰가 가능하다면, 현장조사 경비도 줄이고 현장을 살펴

보는 것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화상으로 살펴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현장조사 특징을 살리는 연구방법에 관한 탐구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강의실 강의 그대로 온라인으로 가져오려고 하니 질 이 낮아지는 것처럼, 원래 하던 방식 그대로 하려고 하면 새로운 방식 의 장점을 살리지 못할 겁니다. 한 석사과정생은 코로나 기간 학위논문 을 쓰면서 카카오톡을 이용한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피면담자가 이 메일, 전화, 화상통화보다 카톡을 편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이 나는 대로 문답을 하는 카톡 대화를 며칠에 걸쳐서 했다고 합니다. 피면담자 의 상황에 맞춘 시도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원망했지만, 생각해보면 연구방법을 개선하고 새로 운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늘 연구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질적 연구방법의 큰 장점과 장벽은 실천에 있는 것은 여전합니다. 동시에 질 적 연구에서 자료수집만큼이나 글쓰기 과정이 중요하고 글쓰기 자체 가 자료 분석 과정이기 때문에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 코로나 시대에 차 분히 앉아 쓰기에 집중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2020 대한지리학회(온라인) 연례학술대회

2020년 대한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를 마치고

- 이정섭(대한지리학회 총무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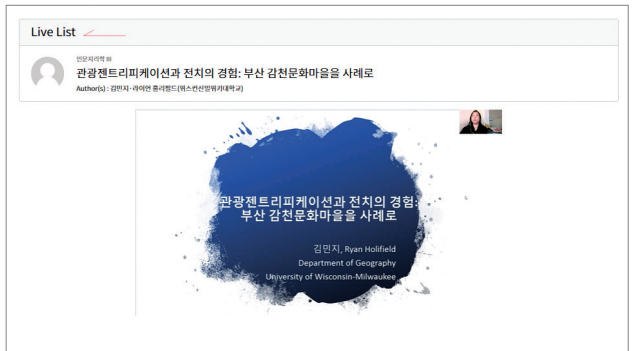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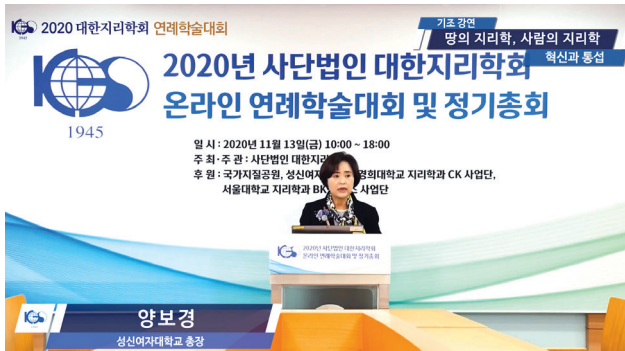
2020년은 기록해야겠지만, 기억하고 싶지는 않은 한 해가 아닐까? 이제는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올해의 '잃어버린 일상'은 이전의 그 것을 그리워하고 가까운 시점에 그것이 되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만 들고 있다. 그만큼 우리 모두는 특별한 경험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

11월 13일에 개최된 2020년 대한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는 예년 과 달랐다. 'e-conference'라는 부제처럼 온라인(<http://conference.kgeography.or.kr>)을 통한 웨비나(webinar)였다. 대한지리 학회는 COVID-19 감염병 여파로 6월로 예정되었던 연례학술대회를 연기했지만, 위험이 여전하여 학회 역사에 있어 처음으로 비대면 방식 으로 학술대회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성신여자대학교 행정관에서 사전 녹화되었던 최재현 부회장님의 개회사와 황철수 부회장님의 환영사 그리고 성신여자대학교 양보경



총장님의 기조연설이 학술대회 당일 오전 10시에 공개됨을 시작으로 특별 및 인문·자연·지도학 및 GIS 분야의 11개 세션이 실시간 비대면 방식을 통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양보경 총장님의 ‘땅의 지리학, 사람의 지리학: 혁신과 통섭’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은 비록 그간 본인의 연구, 교육, 사회적 활동에 관한 이야기라고 소박하게 소개하셨지만, 지리학의 본질과 철학, 미래에 대한 통찰을 아우르는 내용이었다. 특히 후학들에게 지리학과 지리교육 두 축이 함께 나아가고 발전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는 당부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11시부터는 경희대학교 지리학과에 설치된 ZOOM Host를 중심으로 모두 11개 특별 및 일반 세션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특별 세션은 ‘COVID-19를 둘러싼 지리학적 관점’, ‘교원양성체계 개편 방향: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미래에 대한 논의’, ‘4-Plus 미래국토공간 혁신을 위한 어젠다 설정과 제언’ 등을 주제로 8편의 논문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처럼 특별 세션에서는 지리학과 지리교육이 당면한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진단, 해결하고, 아울러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여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일반 세션은 ‘인문지리학’, ‘자연지리학’ 그리고 ‘지도학 및 GIS’ 분야에서 모두 32편의 논문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특히 각 세션마다 신진 연구자들의 참신하고 수준 높은 발표와 적극적인 논의가 돋보였고, 지리학의 밝은 미래를 가늠케 해 주었다. 개인적으로 인

문지리학 중 한 세션의 사회를 맡은 필자는 ‘천리 길 진주’에서 서울을 비롯한 센터기, 위스콘신에 있는 여러 신진 연구자들의 진지한 발표와 토론에 감명받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시상식과 총회 자리를 마련되어, 지명과 고지도 분야에 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부산대학교 김기혁 교수님께서 2020년 ‘대한지리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셨고, ‘대한지리학회 우수논문상’은 경희대학교 지상현 교수님, ‘남계논문상’은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이호욱 박사님께서 수상하셨다. 수상자들에게 경의와 축하를 지면을 통해 다시금 전한다.

2020년 대한지리학회의 연례학술대회는 이전과는 다른 경험이었었고,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분명한 점은 그간 학회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나가고 올해 지리학의 학문 성과를 기록한 자리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새로운 기억도 만들었다. 이러한 기록과 기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이승철 동국대 교수님을 비롯한 학술이사님들, 그리고 차기 대한지리학회장으로서 완벽한 준비를 주도하신 경희대 황철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Technical Manager로서 힘써 준 여러 진행요원과 온라인 학술대회에 등록, 참여하신 130여 대한지리학회 회원 모두가 의미 있는 기록과 기억의 주인공들이었음을 기억하고자 한다.

2020년도 정기총회 개최

일시 | 2020년 11월 13일(금)

장소 | 온라인(<http://conference.kgeography.or.kr>)

내용 | 대한지리학회 2020년 정기총회가 11월 13일 온라인을 통해 개최되었다. 2020년 정기총회는 시상식(학술상, 우수논문상, 남계논문상), 감사선출 등으로 진행되었다.

- **학술상** : 김기혁(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 명예교수)



- **우수논문상** : 이정섭(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조한섭(동국대학교 정치학과)·지상현(경희대학교 지리학과)
- 제54권 5호 (2019)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권역 설정과 적용에 관한 연구-20대 총선의 투표 결과에 기초한 시물레이션



- **남계논문상** : 이호욱(경상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지리교육전공)
- 경남 촌락 가옥의 유형과 분포에 관한 연구(2019.02)



2020년도 대한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 온라인 개최

일시 | 2020년 11월 13일(금)

장소 | 온라인(<http://conference.kgeography.or.kr>)

주최·주관 |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

후원 | 국가지질공원, 성신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공간빅데이터 특성화 사업단, 서울대학교 미래국토공간 혁신 교육연구단

내용 | 대한지리학회 주관으로 2020년 연례학술대회가 11월 13일 온라인 상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4개 기관이 후원하였으며, 개회식에 이어 “땅의 지리학, 사람의 지리학 - 혁신과 통섭”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특별세션 3개, 인문지리학세션 3개, 자연지리학 세션 2개, GIS 및 지도학 세션 3개 등으로 개최되었다. 모두 40편의 학술논문과 18편의 포스터 발표가 진행되었다.

회원동정

류제현 (한국전통문화대 석좌교수)

IGU-Commission C20.08 “Cultural Approach in Geography” Chair 취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류제현 석좌교수(겸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는 2020년 8월 ~ 2024년 8월 임기로 하는 IGU(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 Commission on the Cultural Approach in Geography(국제지리학연합 문화지리 분과위원회) 제 4대 Chair(위원장)로 임명되었다.

제 1대 위원장은 프랑스 지리학자 Paul Claval 교수(1996-2004), 제 2대 위원장은 독일 지리학자 Benno Werlen 교수(2004-2016), 제 3대 위원장은 프랑스 지리학자 Louis Dupont 교수(2016-2020)가 역임하였다. 이 분과위원회는 참가 회원이 총 588명(44개 국가)으로 지금까지 영어권 국가를 넘어 비영어권 국가 간 문화지리학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증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활동해 왔다.

그 밖에도 류제현 교수는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中國地理學會(중국지리학회) 文化地理專業委員會(문화지리 분과위원회) 名譽委員(명예위원), 그리고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AGA(Asian Geographical Association) Working Group on Cultural Geog-

raphy(아시아지리학회 문화지리 워킹그룹) Chair(위원장)를 역임하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문화지리학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번 기회에 류제현 교수는 이러한 3가지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유럽 지역 문화지리학과 교류 확대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문화지리학의 국제화와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22년 7월 18-2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인 IGU(국제지리학회) 창립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계기로 유럽과 아시아 양 지역 간에 문화지리학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확대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 고

-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황철수 교수 부친상
2020. 10. 13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이종원 교수 부친상
2020. 10. 20
-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신정엽 교수 모친상
2020. 11. 14



전문학회 및 교사모임 소식

한국경제지리학회

2020년 한국경제지리학회 춘추계학술대회
“지역의 미래 : Regional Futures”

일시 | 2020년 12월 12일(토) 13:00-18:00

방식 | 비대면 방식(ZOOM과 YOUTUBE 활용)

장소 | (운영본부) 서울 더케이호텔 동강A

주제 | 지역의 미래 : Regional Futures

내용 | 1) 기조강연 : 비대면-초연결 사회로의 전환기에 경제지리학의 과제 : 접근성과 입지문제, 그리고 공간구조를 중심으로
2) 경제지리학 교육특강 :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패러다

임 변화와 지역발전 정책 : 장기기반 스마트 전문화와 혁신

3) KIAT세션 6개

4) 산업클러스터학회 세션 2개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20년 한국고지도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시 | 2020년 12월 5일(토) 13:00-17:00

장소 | 비대면 방식(ZOOM 활용)

주제 |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본 고지도 모사의 현황과 방향

내용 | 논문 4편 발표

기부금 / 이사회비 및 찬조금

대한지리학회회는 여러 이사분들의 도움으로 학회 활동이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학회의 학술대회와 각종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데 이사님들의 이사회비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과 같이 이사회비 납부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납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계좌이체 : (사)대한지리학회 국민은행 841-25-0006-810

2. 카드 전화결제 : 신한, 국민, 삼성, BC(카드번호/유효기간)

☎ 02)875-1463

※ 계좌 이체시 성함을 입력해주세요.

※ 이사회비는 개인 연회비와 별개입니다.

회비안내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안내

정회원 : 50,000원(가입비 10,000원, 연회비 40,000원)

(석사재학중인 2년간은 학생회원으로 연회비 20,000원임.

단, 재학증명서 첨부)

단체회원 : 90,000원(가입비 10,000원, 연회비 80,000원)

학회비 납부 방법

대한지리학회 홈페이지상의 전자결제 이용(본인의 ID로 로그인한 후 [회비납부] 버튼을 누르면 결제가 진행되며, 바로 회원정보에 반영됨)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20년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일시 | 2020년 11월 21일(토) 14:00~17:30

장소 | 비대면 방식(ZOOM 활용)

내용 | 1) 특별세션-아시아의 문화역사지리(1. 인삼의 세계체계, 2. 마카오 체류 필리핀인 가사노동자의 여가에 대한 탐색전 연구)
2) 일반세션 : 논문 3편 발표

한국사진지리학회

2020년 한국사진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일시 | 2020년 12월 11일(금) 13:50~18:00

장소 | 비대면 방식(ZOOM 활용)

내용 | 논문 8편 발표

총회 | 15대 한국사진지리학회장(임기2021.1.1~2022.12.31)으로 을지대학교 이혁진 교수 선출

한국도시지리학회

2020년 한국도시지리학회 동계학술대회

일시 | 2020년 11월 28일(토) 12:00~17:40

장소 | 비대면 방식(ZOOM 활용)

내용 | 해외답사보고, 특별세션 논문 4편 발표, 논문발표 3개 분과를 통해 논문 9편 발표

한국지역지리학회

2020년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 총회

일시 | 2020년 12월 19일(토) 13:00~17:00

장소 | 비대면 방식(ZOOM 활용)

내용 | 자연지리분과 논문 3편 발표, 인문지리분과 논문 3편 발표, 특별분과(동아시아 도시연구의 새로운 인식론과 존재론) 논문 3편 발표

총회 | 신임 한국지역지리학회장(임기2021.1.1~2022.12.31)으로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전병운 교수 선출

한국지도학회

2020년 한국지도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일시 | 2020년 12월 12일(토) 13:45~18:30

장소 | 온라인 회의실 (ZOOM 활용)

내용 | 발표 3개 세션에서 논문 12편 발표

전국지리교사모임

2020년 제5회 전국 중·고등학생 지리책 읽기 대회 개최

지리책 읽기 대회는 많은 학생들이 지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통해 지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시작되었다.

올해는 지구촌이 당면한 '글로벌 이슈'를 주제로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기회를 만들 고자 하였으며, 중학교 33편, 고등학교 198편의 작품이 출품 되었다.

UCC 부문 대상을 수상한 경서중학교 2학년 배수예 외 3명 학생에 게는 '대한지리학회장상'이 수여 되었으며, 이 외 서평·감상문 부문 최 우수상 등 중등과 고등 부문으로 나누어 총 30개의 상이 수여되었다.

대회 일정

- 공모 기간 : 2020년 9월 15일(화) ~ 9월 15일(화)
- 결과 발표 : 2020년 10월 23일(목)

대상

대상	사립	공립(일반)	UCC(일반)	사립 및 사립
초·중·고	1	1	1	1
우수상	3	3	3	3
장려상	5	5	5	5

※ 학교급별로 참가 작품수가 적을 경우 사립학교와 일반학교를 합쳐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대상 내역을 조정할 수 있음

응모 사항

-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 지리책 제목, 읽은 횟수, 감상문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아 10월 15일(화) 17:00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연장하지 않습니다.
- (단 학교에서 대외 활동 불가)
- UCC의 경우 동영상, 이미지 등을 함께 제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수상한 작품이 다른 공모전에서 당선되었거나, 표절 등 참가 자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상이 취소됩니다.
- 수상작은 전국지리교사모임의 자료교육헌터에 공유하여 자료 교육에 활용하여 줄 수 있습니다.

응모 및 제출

http://geoteacher.net/geobooks/ TEL: 070-8783-8212
E-mail: geoteachernet@gmail.com

주최 전국지리교사모임

전국지리교사모임은 전국과 지리교사, 교수 및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리책 읽기 및 연구로 문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4단계 BK21 사업 선정

4-Plus 미래국토공간 혁신 교육연구단

단장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이진학 교수

사업기간	2020.9 ~ 2027.8	사업규모	32억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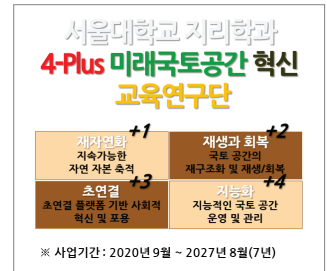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지리학과가 교육부 4단계 BK21 사업의 교육연구단(인문사회분야 지리/관광/지역개발)으로 선정되었다. 4-Plus 미래국토공간 혁신 교육연구단의 목표는 미래 국토 공간에 대한 혁신 어젠다를 제시하고 한국형 미래국토공간 모델(K-LS 모델)을 구축하는데 있다. 나아가 미래 국토를 혁신적으로 생각하고(Thinking) 관리하

고(Managing) 해결하는(Solving) 전략적 공간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부터 7년에 걸쳐 약 35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대학원생(재학생/신입생) 장학금, 대학원생 학

술연구 프로그램 지원, 각종 연구 성과 인센티브 등 우수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교육연구단 홈페이지나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홈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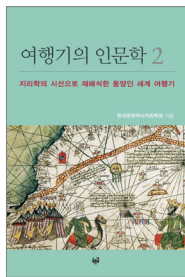
새로 나온 지리책

여행기의 인문학2

한국문화역사지리학 지음, 2020, 푸른길

여행(travel)은 그 어원처럼 고생과 고역(travail)을 동반하더라도 기꺼이 '나'를 찾아 떠나는 길, 타자의 장소와 미지의 공간으로 뻗어 있는 길을 비추는 가늘고 희미한 빛과 같다. 여행과 여행기(travel writing)의 지리적 의미와 은유를 반추하며, 지금 같은 여행 대중화 시대에 지리학자로서 여행기를 읽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와 같은 물음에서 시작된 '지리학자의 여행기 읽기'는 2018년 서양인이 남긴 여행기를 엮은 『여행기의 인문학』으로 그 결실을 보았다. 이제 두 해가 지나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에서는 동양인의 여행기를 다룬 두 번째 책을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여행기들은 당대의 지리적 상상과 인식 확대에 많은 영향을 준 기록들을 엄선한 것이다. 독자들을 고려하여 번역서가 있는 책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여행기의 저자는 동양인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타 분야의 연구 성과와 차별되는 지리적 함의를 소개하는데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여행기는 총 10권으로, 시대순으로 목차가 구성되어 있다. 지난 18~20세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시선으로 타자화되었던 동양인의 여행기를 지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은 동양인이 여행을 통해 낯선 땅과 문화를 접하며



자신을 재발견하고 세계관을 구축했던 경험을 섬세하게 따라가고 있다. 동시에 각 시대를 대표하는 지리서의 고전으로서 동양의 여행기가 지닌 가치와 함께 세계를 인식하는 지평의 근간을 되돌아보게 한다.

테라 오스트랄리스

정인철 지음, 2020, 푸른길

이 책은 고지도 학계 권위자로 알려진 정인철 교수가 펴낸 두 번째 연구서로 지리학, 지도, 탐험, 모험의 관점에서 테라 오스트랄리스와 관련한 전반적인 지식을 다룬다. 오스트레일리아나 남태평양, 남극 탐사에 대한 모험가들의 이야기는 전기 및 역사 소설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이야기는 아쉽게도 모두 탐험가 개인의 영웅적 업적에 대해서만 언급할 따름이다. 어떤 지도가 이들의 탐험을 유인하는 도구가 되었고 또 어떻게 지도의 빈 공간이 채워져 나갔는지를 지리와 역사적 관점에서 통찰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테라 오스트랄리스를 찾기 위한 모험은 인문학의 모티브로 활용되고 있지만, 잘못 분석되고 해석되는 일이 많다. 테라 오스트랄리스 지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세계관이며, 탐험가들의 동기이다. 이 책에서는 세계관의 변화를 지도의 변화와 함께 살펴보고, 탐험의 동기 변화를 정치적·사회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그리고 동시대의 테라 오스트랄리스를 배경으로 삼은 문학 작품의 내용 역시 소개한다.

